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13호
12월 24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성경대로의 복음전파에만 전념

2022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목대원 졸업감사에배 드려



조용목 목사
신학원 원장

2022년도 제6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사이버목회대학원 제3회 졸업감사에배가 지난 12월 15일 (목) 오후 2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드려져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신학원 원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총회장 김병목 목사, 교수진과 중진 목회자들과 성도, 축객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이날 예배는 신학원 학감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학원 교수 노재성 목사의 대표 기도, 강태진 목사의 성경봉독, 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막 16:15,16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사역자 교육훈련의 핵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교수, 공산주의자를 두둔하는 교수를 양산하는 신학교는 사이버교역자를 양산하는 사탄의 지배에 있다. 오늘날 이러한 신학교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김병목 목사
총회장

런 신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신학교공부를 해나 했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그릇되게 하고 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철학을 갖고 성경을 난도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대로 전파하므로 한국교회가 빠른 속도로 다원주의화 되고 공산사회주의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이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충만해야 하며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열심과 담대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케 하신다. 그러므로 열심히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



신재영 목사
직전 총회장



파하는 일에만 전념을 다하고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학사보고, 신학원 원장 조용목 목사의 학위수여,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상장수여, 교단 직전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사, 대학원 교수 김용덕 목사의 권면 사회자의 광고, 대학원 교수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졸업감사에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졸업생들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던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예배 광경



교수진



교단 제71차 총회 제3회 임원회

교육과정 개정안 반대 북한 핵폐기와 평등법 제정 저지 위해 기도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부 백영자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15:10 말씀을 본문으로 한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소유주이시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적 자질이나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있으며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고 전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나 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역자로 서 오직 말려진 사명감당을 위해 정진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김병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와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사이버신학원, 목회대학원 졸업식이 거행되는 것들을 보고했다. 이어 재부 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순남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 교역자대표보고, 교회폐쇄 청원 보고사항과 공석이 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기타사항으로 교단헌법 제43조전도사 특례와 관련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지명회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은 후 5년 이상 된 자는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세부시행규칙안을

검토하고 개 교회의 심방전도사 활용방안을 면밀히 살펴 교회에서 유익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또한 일본 하나님의성회 교단과 본 교단이 선교에 관한 협정을 맺고 각종 업무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2023년도 시무예배 및 71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2023년도 1월 6일(금) 오전 11시는 해외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개최하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이날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졸속 처리된 2022교육과정 개정안 반대와 평등을 반자로 차별을 조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북한 핵폐기와 무용지물이 되도록, 감염병재유형을 막고 감염병이 종식되도록 한 마음 되어 기도했다.



'기도하는 성도가 경험하는 세 종류의 변화'



조용목 목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네게 보일리라" (렘 33:2,3)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 종류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의향을 바꾸시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루거나 실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에 의해 강제되어서 변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에 의하여 스스로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도와 의향을 바꾸십니다.

모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타락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모세에게 알리신 다음 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선언하셨습니다.(출 32:10) 그러자 모세는 중재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기반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며 호소하였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재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태도와 의향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담력을 얻게 하여줍니다.

둘째, 기도는 좋지 못한 성격과 사고방식 그리고 나쁜 언어습성이 변화되게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은 유전에 의한

것이므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았거나 습관에 의하여 생겨난 것으로, 이 역시 고질화된 것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지 못한 성격과 사고방식과 언어습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를 스스로 변명하고 변호하거나 혹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좋지 못한 성격과 사고방식과 언어습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기도는 다양한 문제와 곤란한 상태를 유리하고 유익한 상황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들려 잡히는 여종을 고쳐주자 문밖이 수딘이 없어진 주인들이 분하게 여겨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밧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쯤 되어 놀라게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때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판단하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어 들었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와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관원들이 직접 와서 정중하게 말하며 빌립보를 떠나도록 바울과 실라에게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게 하였습니까.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 종류의 변화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날로 누적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종교의 자유보장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히 해야

전국 시군구기독교연합 송년회 및 전국지도자회의



임영문 목사
전기총연 대표회장

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뜻을 모아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기독교인원특별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국민의힘과 협력을 다짐한 위원장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과 대외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상홍 장로가 함께했다.

1부 감사예배는 사무총장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한국성서학회총본부회장)의 사회로, 김봉준 목사(서울기총 회장)의 대표기도, 홍영태 목사(서원성문교회)를 위한국민연합)의 성경봉독, 테너 박재하 교수(동서대)의 특송,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고문 유민석 목사(경기기총 회장)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말 2:1-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영문 목사님과 장군 장로님 콤비네이션으로 시작된 전기총의 모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노고를 들어보셨다"고 전했다.

이어 주재별기도는 윤태봉 목사(충북기총 중경회장),

최만준 목사(충남기총 회장), 박종희 목사(경기기총 직전회장), 이현국 목사(부기총 회장), 이우탁 목사(울산기총 회장)가 각각 대통령과 지도자들, 차별금지법, 동성애, 북한인권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후 현수동 목사(세종기총 직전회장)의 광고와 고문 심하모 목사(은평제일교회)의 축도로 1부를 마무리했다. 2부 송년의 날 행사에서는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원소문종목예배운동본부) 사회로 국민의례를 진행한 뒤 이사장 임영문 목사(행화교회)가 내빈소개 및 환영사를 했다.

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문제를 부를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송년사를 전한 고문 이억주 목사(교회언론회 대표)는 "2019년 전기총연의 대회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예수한국 통일 한국이 될 때까지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권선동의원은 "기독교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지지 세력 중 하나였다. 특히전기총연의 노력은 놀라웠다"며 "본체인 정부 5년간 망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다시 굳건히 세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윤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충고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기도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성탄트리 점등식 화해 기대

2022년 국회조찬기도회(회장 이재의 국민 의협) 국회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에베가 지난 12월 7일(수) 오후 5시 국회의원과 대회의실과 국회분수대광장에서 드러졌다.

이날 감사에베는 김희재 의원(국회조찬 기도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의 사회로 송석준 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국민의 힘)의 대표기도와 서정숙 의원(국회조찬기도회 총무, 국민의힘)의 성경봉독, 새에덴교회 찬양대와 새에덴 브라스밴드의 특송에 이어 소강석 목사(전 한교총 대표회장)가 ‘성탄절, 대 회하의 절기(요 3:14-16)’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국가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라와 국회를 위하여, 한반도와 세



계평화를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했으며,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글기도 후 소프라노 김혜영 교수(한국성악가협회 이사, CTS 찬양선교사의 특송에 이어 이상문 목사(한교총 공동회장, 예성 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재의 회장(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미화

원들에게 220포대의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어 분수대광장에서 성탄트리점등식을 진행했다.

이재의 국회조찬기도회장은 인사말에서 “아들을 밝히는 희망 성탄트리처럼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위로 및 구국 기도회

원로목사총연, 유가족 위로 및 나라 안정과 번영 위해 기도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대표회장 송용필 목사, 후원회장 이주태 장로/이하 한원총)와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기총)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 협회(이하 한평협)가 주관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나라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드러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임관재 목사의 사회로 김사철 장로(한평협 초대회장)의 대표기도, 진동원 목사의 성경봉독, 목자성가대의 찬양, 소프라노 이경미 교수의 특송, 엄신형 목사(전기총 대표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엄신형 목사는 마 14:22-32 말씀을 본문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 터져 올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



고 인도해 주신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조경태 국회의원의 위로의 메시지, 이종득 장로(전기총 재무국장)의 한글기도, 송상의 장로(한평협 사무총장)의 한글특송 후 분세광 목사(한원총 상임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특별기도 및 위로의 시간은 이강욱 장로(한평협 대표회장)의 사회로 양장부 목사(원로목사회 공동회장)가 먼저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

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

이어 박천일 목사(전기총 실무회장)·최승인 장로(한평협 부회장)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위로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도를 했다.

이날 임성택 목사(그리스도대학교 전 총장)·신동진 목사(한원총 공동회장)도 “생각지도 못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성서공회, 제138회 정기이사회 개최

어려운 여건에도 국내외 성서공급 활발히 진행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 제138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소재 공회회관에서 열려 2022년 국내외 성서보급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기도회는 양태우 목사(빛교회)의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2부 회무처리는 권의현 시장의 사장 보고,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다.

이날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박태식 사제(대한성공회), 김상현 목사(예장합동), 김은섭 목사(무터회), 양병희 목사(예장백석) 등이 선임되었다. 찬성회원 대표로는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분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선임되었고, 송영훈 감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찬성회원 대표로 정병철 목사, 감사에 박철영 장로가 선임되었다.

시장보고에 나선 권의현 시장은 국내 성서 보급에서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성

경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 성경을 합하여 총 88,010부를 보급하였다.”라며, “지난해 말에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또 더 쉽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독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그밖에 해외 성서 기증 사업으로는 “세계성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에 미화 25만 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개 회원 성서공회에 84,092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했다”며, “특별히 이 중에는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381,600부의 우크라이나어 성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독교교회개혁연합, 제8차 기도회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

(사)기독교교회개혁연합회(이사장 남윤국 목사, 대표회장 박대규 목사)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이레교회(담임 이상원 목사)에서 교회갱신협의회 제8차 기도회를 갖고 연합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남상봉 목사의 사회로 상임총무 김선영 목사의 기도, 찬양사역자 이경애 목사의 특별찬양, 수동 연세요양병원 병원장 염안섭 목사의 사 5:12-13 말씀을 본



문으로 한 ‘동성애의 파괴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회계 탁혜경 목사의 한글 기도, 사무총장 남상봉 목사의 광고 후 대표회장 박대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기도회는 서기 이상원 목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이 ‘나리와 민족복음화’, ‘위정자와 정치 및 경제와 문화의 안정을 위해’, ‘기교 연 소속 총회와 단체의 발전 및 기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를 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본질회복과 전도·선교·영혼구원을 위해, 지역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 교회가 생동감 넘치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몽골단기선교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 후원 강화

예수교대한웨슬레회 제39차 정기총회 개최

예수교대한웨슬레회 제39차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1일(주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상왕산리 소재 총회본부에서 열려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등 국내외 선교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 1부 예배는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의 사회로 총무 김재형 목사의 기도, 서영민 목사의 행 1:6-8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방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서영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지상명령”이라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파의 제자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2부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회계

보고를 비롯한 각부 보고를 들은 후 임원개선에 들어가 임원진을 모두 선임시켰다. 이어 39회기 사업으로 몽골 단기선교, ICWC컨퍼런스 참가 등 해외선교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교단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밖에 농어촌교회 지비량 이·미용 봉사과 탈북인 선교, 교육원 및 양로원 등 소외계층 선교, 연합수련회 등도 상황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회의록 채택에 이어 서영민 목사의 축도로 폐회했다.

△총회장 정동석 목사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 △총무 김재형 목사 △전도부장(회계 겸임) 차재성 목사 △교육부장 신동명 △서기 최종무 △회계 김안균 △평신도위원장 하근용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제18회기 정기총회 개최

회장에 총회신문 노곤채 목사 연임

한국기독교언론협회는 지난 12월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는 회장 노곤채 목사의 인도로 박한근 목사(목양신분)의 기도에서 증경회장 강춘호 목사(교회연합신분)가 ‘세 가지 말씀(요 1:1-14)’을 주제로 설교했다.

정기총회는 김형원 장로(증경회장, 크리스찬한국신분)의 기도, 서기 유현우 국장(CDN)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제책, 전 회의록 낭독, 회계 이준수 국장(월드미션)의 회계보고, 회장선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장선거에서는 노곤채 목사(총회신분)가 지난 회기에 이어 연임됐다. 회장에 당



선된 노곤채 목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들 다시 일으키는 일에 기독교 언론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원으로 총무 유현우 국장, 부회장 이준수 국장, 서기 최성주 기지를 지명된 뒤, 제18회기 사업 계획 등을 토의한 후 폐회했다.

세종성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창조질서에도 어긋나고 헌법도 위배. 반드시 막아야”



세종특별자치시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임광열 목사, 이하 세종성시화)는 지난 12월 11일 세종 송담교회(임명성 목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전한 임광열 목사는 “성시화운동본부는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시

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이 사역을 위해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회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더욱 열심히 성시화운동 사역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염세열 목사(세종성시화 공동회장)의 인

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손경희 목사(세종성시화 사무총장)가 기도하고 정태원 목사(세종성시화 재정위원장)의 성경봉독, 전운태 장로(세계성시화 대표회장)가 창 1:27-28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법’이란 제목의 특강을 인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언급한 전 장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에 대처해왔다. 용어는 좋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동성애자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이라고 처벌받는다”면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라는 용어 대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법을 만들면 다시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총회, 제74차 교역자 동계수련회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강은도 목사 강사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총회장 류금순 목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제74차 교역자 동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위기를 넘어 회복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전진하는 중앙총회의 변화가 매우 잘 드러난 수련회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위기의 시대 속 교회와 사회를 향한 중보를 실현했다

총회장 류금순 목사는 네 힘을 일컬어 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위기와 상처가 시대를 힘들게 하는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목회자의 각성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며,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나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때로



돌아가는 것, 성령 충만으로 재부활하는 것, 더 충만한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함께했다. 순식간에 수련회장을 자신의 콘서트장으로 만든 박 장로는 엄청난 성령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중앙의 목회자들을 감동시켰다. 여목들도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환호하며 박수치며, 박 장로의 찬양을 함께 즐겼다.

여기에 박 장로의 위트있는 말씀씨와 실력이 더해지며, 중앙 수련회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특히 죽음을 목전에 둔 간암 말기기를 이겨낸 박 장로의 인생 스토리에 함께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 생명의 말씀 ■



백영자 목사

· 교단 재무
· 여교역자국장
· 녹동순복음교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싸움을 못하거나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1-3절).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때문이거나 귀가 아두워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사 1:15, 59:1-2).

셋째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7절)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거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안 될 때는 바꾸자

약 4:1-10

하셨느니라”(전 7:14)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하 그 래서 그랬구나’를 깨닫는 순간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시 23:4).

고난 당하던 욕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금과 같이 만들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욕의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 되었습니다(욥 23:10).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요 2:5).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2:9)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합니다(요 11:44). 믿음은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전혀 상관없이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새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 속에 말씀하시므로(요 14:26)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십니다(예 1:1). 불어오는 바람과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렐 1:20).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

고하였다’의 헬라어 ‘코피아오’는 ‘죽도록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고생해도 채우지 못했던 그물에 순식간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싸워도 안되고 욕심을 내어도 안되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해결되었습니다.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를 했어도 안 되거든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마 19:26).

둘째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강중강중 뛰며 반기워합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다녀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다니는 자는 하나님도 멀찍이 두시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6-7)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고 부인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눅 22:54)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가지 않았습니

다(단 6:10).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 불에 던져 태워 죽인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멸할까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7-18)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렐 10:13).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렐 10:10).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눅 12:9).

게리 체프먼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에는 사랑하면 숨길 수 없는 언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셋째 그러면 하나님께 낮아져야 합니다(10절)

6월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10절)고 약속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미움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6:18-19)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면 높여 주십니다.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안되던 이유는 교만이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앞에서 낮추면 됩니다. 이제 주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높이십니다(사 40:31).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기 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삶의 타전을 잃어버린 슬픔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전쟁과 기근과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심령에 임하여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앙과 자유를 빼앗기고 가난과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이 일상이 된 가없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 앞에 나서서 도구(傳道)의 눈물을 흘릴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아니한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웃음 잃은 부지들과 권세를 주정하는 권력자들과만 친구가 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실천명령을 받들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2022년에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주의 종들과 온 교회가 거룩하신 성탄의 기쁨을 실현하여, 이 세상 모든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동 정

한동대, 미세먼지 모니터링 캠퍼스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국내 1호 스마트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는 캠퍼스가 되기 위해, 담비전스와의 상호협력 MOU를 지난 11월 25일 체결했다. 담비전스는 영상 AI 기반 미세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으로,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담비링 기술인 ‘비전플러스’를 개발했다.

부기총 신임총회장 이금숙 목사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지난 12월 15일(목) 열린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이금숙 목사, 사무총장에 조근일 목사를 선임했다. 부기총 53년 역사 이래 첫 여성 총회장에 선임된 이금숙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했다.

기아대책, 자립준비청년 지원



국제 구호 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LG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마음하나 김치특품 사랑의 김치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2월 14일(수)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지원 및 겨울철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배우 신소울, 해비타트 홍보대사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서 배우 신소울 씨를 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13일(화) 본부에서 위촉식을 갖고 주거 취약 이웃들의 보금자리 지원을 함께하기로 했다. 신소울 씨는 한국해비타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후원 및 건축 봉사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주님, 어둠에서 새벽으로 이끄소서!

급변에도 성탄절을 맞이함이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들인 모든 이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측불가하고 위험한 세상, 슬픔 많은 세상일지라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깊은 어둠에 뒤덮여 있다. 우리 사회 어디

를 둘러보아도 위험한 일들, 본제만 더 쌓여가는 실망스러운 것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온통 회색빛으로 가려져, 마치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실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와 헤롯왕의 학정(虐政)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에는 희망이 사라지고, 영적인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었으니, 서민들은 놀린 고통의 무게로 인하여 탄식하며 지새우는 영적 깊은 밤과 어둠 속에 살았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선한 것을 원치 않는, 악한 영의 지배하에 희망의 빛은 점차 사라지고, 절망스러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이 아닌가? 거짓과 위선, 폭력과 타락이 일상적이고,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을 잃었으니, 예수

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외에 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요?

지배가 섬김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악의 선을 가장(假裝)하고, 강압이 공화를 억압하고, 경멸이 존경을 몰아내고 거짓이 진실을 지워버리고 미움이 사랑을 쫓아내었으니 이를 어찌 하리요?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이런 악행을 멈추게 할 것인가? 누가 이 시대를 참된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창조된 세상으로 바꿀 것인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여, 이런 상황이 남의 일인가?

급변에는 성탄의 좋은 소식을 마땅히 기뻐할 수만 없게 되었으니, 주님의 돌아서신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퀴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리 가노라” 이를 누가 장자의 영화 대사(臺詞)라고만 여길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때도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숭고한 심령(心靈)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딸 에루살렘이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화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생명 경시의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일명 동성애법, 가정체제, 교육 개정 발미로 사상을 오염시키는 교과서 제정 시도 등)를 대놓고 거부하는 시대, 원수 갚는 것과 타락된 삶을 무슨 권리로 여기는 시대, 완악(頑惡)하고 패역(悖逆)하며 음란하고 우상숭배와 술수(術手)를 즐겨,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 세대를 외면할 것인가?

생명의 주님을 심령에 모셔 들어서, 거룩한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할 일이 크지 않겠는가? 코비드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

이 시립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짐을 져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 있는 자처럼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강도만난 자의 잡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본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이번 성탄에 빼앗기고 상실한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메시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룩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머무는 곳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의와 사랑을 구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사람의 모델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이루시고자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가 초유의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통제와 억압의 시기를 보내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전쟁발발로 전 세계가 연료난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는 정장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나라를 위해 화합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 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의 속성은 의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화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몸소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같이 책임을 져 주는 것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정덕화 목사, 총무: 최달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신측)총회
총회장: 최철호 목사, 총무: 유영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광범준 목사, 총무: 김중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한성복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강문중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이윤숙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천점수 목사, 총무: 장영광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최병찬 목사, 총무: 오희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오용자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강임순 목사

한국 H I M 선교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이동진 목사, 총무: 김화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무른빛)총회
총회장: 김희교 목사, 총무: 김영철 목사
세계선교연대총회
총회장: 박용옥 목사, 총무: 최요한 목사

가 입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김일환 목사, 총무: 김일업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김병목 목사, 총무: 정진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배재한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도용호 목사, 총무: 오갑수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net.net

성탄절 감사예배드리고 성탄트리 점등식 가져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김건수 목사 성탄메시지 전하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는 지난 12월 7일(수) 오전10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경무관)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경목회 발족식을 갖고 성탄절 감사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식전행사로 열린 1부에서는 우쿠렐레 공연 팀의 캐롤송 특별연주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찬양을 통해 함께 했으며 이어서 고창경 자치경찰단 단장이 교단 전임 회계 김건수 목사(제주한미음교회)를 비롯 5명의 경목회 목회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곧바로 자치경찰단에서 드려진 2부 예배는 강창근 목사(화북서광교회)의 사회, 성철민 목사(주원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건수 목사(제주한미음교회)의 말씀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20: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탄절 메시지 선포를 통해 '성탄절의 참 의



미'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탄의 놀라운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소중한 마음들을 갖게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순구 목사(제주안디옥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로비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앞으로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경목회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자치경찰단 신우회를 발족하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조찬기도회도 갖기로 했다.

경목회에서는 제주도 치안을 위해 수고하는 자치경찰단 단원들에게 제주송편과 과일을 선물해 주었다.



순복음은혜교회 이전감사예배

총서지방회

총서지방회(회장 이인복 목사)는 12월 10일(토) 오전 11시 예산을 소재 순복음은혜교회(김영권 목사) 이전 감사 예배를 드

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엘시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최승수 목사(홍주산성교회)의 대표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RK팀의 특송과 지방회장 이인복 목사(송죽교회)가 록 2:8-20 말씀을 본문

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성령에 기록된 인물이든 사물이든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듯이 본문에 예수님 탄생을 처음 알린 목자를 택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한 성도로서 말씀에 의지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종한 목사(양묘교회)의 권면과 광일귀 목사(나사렛성결 안디옥교회)의 축사, 이어서 사회자의 헌금 기도와 순복음은혜교회 담임 김영권 목사의 인사와 광고, 전임지방회장 안흥규 목사(한사랑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이전 감사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후 장소 이동해 오전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고 모든 일정을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송년예배, 모세처럼 전고한 믿음 소유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흥열 목사)는 지난 12월 13일(화) 비전순복음교회(담임 김진현 목사)에서 12월 월례회 겸 송년회 예배를 드렸다.

먼저 1부 순서로 김효신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최병일 목사의 기도와 배길선 목사의 성경봉독 사도 중창단

과 정석현, 정세창 목사의 특송, 전임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히 11:23-26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하는 암울한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애굽을 시작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모세처럼 더욱 기도에 힘쓰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당부했다.

이어 서경오 목사의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지방회와 개교회와 병든 자를 위한 기도회를 인도한 후, 정세창 목사의 헌금기도 후에 지방회장 박흥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12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중식 후에 지방회 주관으로 제1회 순회 부흥회를 가졌다.

김진현 목사의 찬양 후에 박서현 전도사(창대교회)는 행 10:44-48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모든 지방회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간증과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지방회와 배길선 목사가 준비한 생강차를 선물로 받고 각자 목양지로 향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

광주신학교 제11회 졸업예배 드려

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12월 12일(월) 목양제일교회에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광주신학교 제11회 졸업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예배는 교무처장 김해상 목사(순복음중앙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민정술 목사(순복음동산교회)의 대표기도,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성경봉독, 호남지방회장 조남연 목사(무안송죽교회)의 설

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강조하고 졸업생들과 참석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어 학장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는 훈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교방식과 생각과 언어를 기질 것"을 당부했으며 광주지방회장 조은주 목사(순복음참종은교회)의 권면, 예하성 교단 재무인 전라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복동순복음교회)는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예배에서 총회장상과 학장상은 김연순 학우에게, 이사장상은 김광순 학우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광주신학교 전임 이사장 주덕영 목사(나주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월례회 갖고 지상명령 감당할 것 다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1월 29일(화)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세로문교회(담임 최규식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영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복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목사는 뒤로 4:1-8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신실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빌라델비아교회를 향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할을 역설했다. 특히 '주의 나타나심을 사



모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달려갈 길 곧 지상명령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전라지방회의 교회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총회와 교단 임원,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전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

회자 가족들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최형택 전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결의하고 자리를 옮겨 세로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함께 나누는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제4회 가을연합부흥성회 은혜와 성령충만 가득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형순 목사)는 지난 10월 26일(수)에서 28일(금)까지 순복음아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에서 제4회 가을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인 26일은 클래식 성악가 겸 드림라이프 대표 유정현 전도사의 인도하에 콘서트 시작하여 게스트로 등장한 CCM가수 이원수 전도사와 장근희 교수가 더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었다.

찬양과 은총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둘째날인 27일은 예하성 부흥사회 회장이며 제헌 순복음양문교회 담임 김기진 목사를 강사로 영적인 부흥회 첫 문을 생명의 말씀 선포로 열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예하성 직전총회장, 새김전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시간으로 3일간의 부흥성회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다.



특히 금년 경기지방회 연합성회는 지방회 남성목회자와 여성목회자들이 매 예배시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돌렸으며 사모들로만 구성된 한금송의 감작 특송으로 은혜와 함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牧羊新聞
광고문의
02)2677-9935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집사·장로 안수 임직예배 드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한 목표 위하여 앞장서 헌신” 다짐

은혜와진리교회 '집사·장로 안수 임직예배'가 지난 12월 10일(토) 안양성전에서 시종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안수집사 173명과 장로 151명, 명예 안수집사 13명과 명예 장로 9명이 각각 많은 성도와 가족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임직되었다.

신임 안수집사와 장로들은 존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임을 수행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

리내며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고 신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오전 10시 대성전에서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교단 정책위원 진동용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성경봉독, 안양성전 갈릴리성가대와 GNTC 안양청년성가대의 찬양,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임직식 순서로 말씀과 성령

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담전 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경적 직분관'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성직의 의미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그 임무와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해 주었다.

조 목사는 “이론과 홀의 인내와 성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인



이고 소망적인 언행을 본받아 헌신하는 제직, 하나님의 백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합임으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안수식 등 임직 예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엄숙하고 거룩하게 거행되었다. 임직자와 성도들의 서약이 있는 후, 안수위원들에 의해 안수기도가 행하여지는 동안 성도들은 임직자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도록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계속해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임직공포 후 축복기도를 한 후 임직증서와 임직패, 배지를 수여했다. 임직자 선서에 이어 교단 정책위원 이용주 목사와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축사를 통해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이어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말미암아, 성령충만, 감사와 기쁨 충만했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고문



진동용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총무



강경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박노섭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홍석용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유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김태흠(충남도지사), 강훈식(국회의원), 박경귀(아산시장), 김종오(아산경찰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N대 교수), 박하식(전 삼성교 교장)

대표고문 진동용 목사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경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공동회장 진동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경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하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영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동산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광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창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장정우 목사

사무총장 정용록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이영규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계** 임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총무** 황의덕 장로, 정해근 장로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인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읍대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한교연 12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선임

“한국교회 살리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역할 감당할 것”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지난 12월 6일(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직에 송태섭 목사를 선임시키며 교회연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섬겨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교연은 사단법인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대표 신명섭 원장)를 회원단체로 가입했으며, 대표회장과 사무처, 상임위, 특별위 등 활동 경과보고와 감사 및 재정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대표회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송태섭 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선임했으며, 상임회장에는 김병근 목사(합동총신 총회장)와 조성훈 목사(대신대 총회장), 이영한 장로(한국기독교인연합회 증경대표)를 선임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다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해 앞장 서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고”면서 “임원들과 논의

하고 공유하면서 연합 정신으로 나아가겠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연은 12회가 동안 △차별금지법 폐기 △국가변영 및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회 △한국기독교기독교연합회 △기독교사학 보호와 발전 △기독교인론 지원 △탄소중립 교육실현 △기독교연합기관 통합 등을 7대 중점사업으로 삼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힘을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교회만이 빛과 소금, 구원의 방주가 됨을 믿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가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좌파적 젠더이념을 배격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월드뷰티핸즈, 자원봉사 우수기관 표창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

국제사회구조개발 NGO ㈜월드뷰티핸즈(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교수)는 지난 12월 5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주최한 '2022 마포구 자원봉사자의 날 V-페스티벌'에서 장현일 이사장이 자원봉사 우수기관 감사장을 장민욱 사무국장이 우수 자원봉사자로 표창장을 각각 받았다.

마포구는 “월드뷰티핸즈는 노숙자와 쪽방촌과 독거노인,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다년간 빈민지역을 비롯한 K-뷰티 등 실생활을 지원하는 소셜서비스 활동을 펼

쳐 왔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월드뷰티핸즈(WBHI)는 행정안전부 승인 법인으로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이며 행안부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자격과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어 투명한 재정 운영과 소셜서비스전문NGO기관이다. 최근 서울시 대흥동종교협의회와 함께 고독사제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얼음판 지뢰밭 속에도 전도열차는 달린다

온 시야에 눈으로 덮힌 태고의 숲결이여
밖에는 온통 새 하얀백설의 옷자락 정취
원시의 숲결 전지에 가득하다.

평내틀 고고한 대지위에 함박눈이 나부낀다.
그레도 천성 문을 향해서 전도열차는 달린다.

수원성 천고의 도성이며 함박눈 시린 향내음
그레도 생명의 부름 있기에 전도열차는 달린다.

차바퀴가 미끌미끌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향하여
오늘도 전도열차는 달린다.

1000번 집회를 향해서 802번째 드리고 있는
이름하야 천안 '약속교회'
천안골 어머니 품만 실만한 곳이어라.

혹독한 추위에도 전도열차는 달린다.
이번 주는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가족세트전도집회 기간이다.

시간시간 은혜의 단비
목마른 이들을 주께서 보내 주신다.
놀라운 현상, 기적의 역사,
코로나도 피해간다.
강추위로 피해간다.

한순간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입체
감동으로 바쳐오른 일전번제

한주도 쉼없는 천상의 신비가 이곳에 살아
천리한 예배로 숨쉬는 위대한 약속교회여.

하나님의 사선이 머무는 이곳
임미향 원장과 유재민 담임목사
위대한 약속교회
세계선교의 호흡으로 날아오르라

전도와 선교비전의 두 날개
환희의 찬가 속에 비상하라, 날아오르라.

죽으면 죽으리라
전력질주 다해 예배에 온 맘 드린다.
가족세트 전도자여 전도왕 박영수 목사는
한국교회, 더 나아가 육대양 오대주
세계교회를 향해
예수생명 살아숨쉬는 건강한 교회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도전한다.
각교회의 전도자를 발굴한다.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전도자가 발굴되고
훈련되어질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2022 대한민국 성탄 축제 개최

12월 17일(토)부터 26일(월)까지 진행

2022년 '조선의 크리스마스' 시즌2로 지난해에 이어 성탄축제가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성탄축제-조선의 크리스마스'는 오는 12월 17일(토)부터 26일(월)까지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성탄절과 초기 기독교의 조선을 향한 섬김'을 담고 있는 이번 행사는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사랑의교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10일 동안 대한민국 덕수궁 돌담길 운교 터 앞에서 성탄 축제 개막식(17일)을 비롯해 ▲성탄축제 음악회(17~26일) ▲덕수궁 돌담길부터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까지 성탄축제 거리 조성(17~26일)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조선의 크리스



마스 자료 전시(17~26일)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성탄마켓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17일 덕수궁 돌담길 운교 터 앞에서 열린 개막식은 코로나19 재유행 조치와 이태원 참사 사건 등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10여명의 내외빈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번 성탄축제 개막식에는 CTS 감경철 회장을 비롯하여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담임목사, 서울특별

시의회 예결위 위원장 이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주무관,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최근 경제 위기와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지쳐가는 국민들과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위로의 성탄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2022 후원회원 송년행사 ‘Hero Day’

후원 회원들에게 생명나눔 감동 전해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는 12월 3일 오후 12시,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히브루스에서 2022 후원회원 송년행사 ‘Hero Day’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행사는 우리 사회의 영웅인 뇌사 장기기증인을 기억하고, 그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위로(위드하이어) 캠페인’에 함께하며 기부를 실천한 후원회원들을 초청했다. 뿐만 아니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하 도나페밀리)과 심장과 신장을 이식받은 이들도 함께해 후원회원들에게 생명나눔

의 감동을 전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Hero Day’에는 후원회원 및 도나페밀리 이식인, 재능기부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나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1부 생명나눔 주인공들의 이야기 듣는 ‘Hero Day’ 스토리와 애플뮤직의 콘서트, 2부 ‘Hero Day’ 이벤트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순서에는 도나페밀리 강호 씨, 김조이 씨, 박상렬 씨, 장부순 씨, 홍우기 씨가 무대에 올라 기증인의

이야기와 함께 생명나눔이 이루어진 순간을 전했다.

도나페밀리 외에도 심장을 이식받은 후원회원 김상훈 씨(남, 27세)와 신장을 이식받은 후원회원 박상연 씨(남, 60세)도 참석해 무대에 올랐다. 심장이식인 김 씨는 “첫 번째 생일은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날이고, 두 번째 생일은 기증인의 심장을 이식받은 날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기증인과 그 가족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며 “그 사람을 기억해 저도 필요한 곳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군비금도천일염판매

20kg

40,000원(택배비포함)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선교회·기관 다량구매 010-3000-7602 연락바랍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믿음으로 생김 같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신뢰와 격려의 언어



말, 언어는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지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은 불통이며 혼란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은 탑 쌓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알게 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앙인의 언어와 불신자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것은 믿음에 품고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맑은 소리여야 합니다. 밝고 아름답아야 합니다. 희망의 소리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해야 합니다. 남들에게도 그렇지만, 자신에게도 일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일정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인은 환경에 따라서 언어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말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를 잘 사용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입, 혀로 소리 내는 것이기에 결국마음이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신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인답게 진실한 언어,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 14:28)는 말씀은 축복된 말씀이지만 한 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 주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에게 긍정하고, 남들에게 신뢰와 격려의 언어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어 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미쁘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 4:6)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은혜 중에 은혜

내 죄를 사하시려
이땅에 오신 예수님
보혈로 씻어 의에 옷 입히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재너 삼아주시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감사하여라.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알게 되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보배로운 약속들
신기한 능력되어 날 지켜주시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감사하여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넣어주시고
부르심에 응하고 택하심에 아멘 하여
성령열매 맺게 하사 영광되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감사 감사 하여라.



벧후 1장을 읽으며
속사함을 키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교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